

# 倫理學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있는가?

李 熙 柱

## I

1. 現代는 規範倫理學이 學的 可能性의 與否를 묻는 Meta-ethics가 강한 勢力으로 擡頭되어 從來의 規範倫理學은 相當한 危機에 直面해 있다. 現代에 와서는 倫理學의 絕對論 (ethical absolutism)에 대한 懷疑가 深刻한 勢力으로 擡頭되어 規範倫理學이 學으로서의 可能性을 否定하는 倫理認識否定論 (nongcognitive theory of ethics)이 나타나서 現代倫理學의 한 特徵的인 傾向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現代의 Meta-ethics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行爲해야 하느냐라는 規範的 物음에 直接 對答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規範的 物음이 學的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인가의 與否를 糾明하는 것을 그 課題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現代倫理學이 含有하는 最于先의 課題는 規範倫理學이 하나의 學으로서 成立할 수 있는가하는 問題이다. 古典倫理學이 倫理學을 學으로서 成立할 수 있다고 自負한 것은 人生의 普遍的 目的 또는 行爲의 普遍的 法則의 存在를 自明한 것으로서 認定하고 그것을 根據로 한 絕對的 道德의 原理가 있다는 것을 그 前提로 하여 出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絕對的 道德의 基準이 과연 있느냐 하는 問題가 深刻한 懷疑에 봉착하고 있는 現代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當爲의 問題를 다루기 전에, 그러한 當爲의 問題가 學的으로 解答할 수 있느냐 하는 純전히 理論的인 問題부터 밝히지 않을 수 없다.

現代 meta-ethics의 課題는 當爲내지 價値를 묻는 規範倫理的인 物음도 存在내지 事實의 物음과 마찬가지로 學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인가 하는 純전히 理論的인 問題부터 밝히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處해 있다.

2. 規範倫理學이 學的 成立의 可能性을 밝히려면 道德判斷의 眞僞를 科學的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倫理學이 學으로서 成立할 수 있느냐의 問題는 道德判斷의 眞僞를 밝힐 수 있는 方法이 있느냐 하는 方法論의 問題이기도 하다. 그리고 道德判斷의 眞僞를 밝히는 方法論의 問題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道德判斷의 意味가 確然히 糾明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倫理學이 學的 可能性을 밝히려면 意味論이 方法論에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現代 meta-ethics의 基本的 課題는 大部分 道德의 言辭(moral terms)의 意味를 論理的으로 分析하는 것을 主要한 任務로 삼고 있다. 現代 Meta-ethics에서 倫理學의 學的 可能性을 否定하는 代表的 立場은 Emotivism이다. Emotivist들은 道德의 言明(moral statements)은 事實判斷과는 論理的 性格이 判異하기 때문에 道德判斷의 眞偽는 客觀的 方法으로 밝힐 수 없다고 主張한다. Emotivism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있는 것은 그 命題의 眞偽를 定義에 依하여 論理的으로 立證할 수 있는 分析命題(analytical proposition)이든지 또는 그 命題의 眞偽를 經驗에 의하여 檢證할 수 있는 綜合命題(synthetical proposition)라야 學的 對象이 될 수 있는 意味있는 命題(meaningful proposition)라는 것이다. 그런데 道德判斷은 判斷者의 主觀的 感情의 表明에 불과하므로 그 判斷의 眞偽를 論理的으로 밝힐 수 있는 分析命題도 아니며, 經驗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綜合命題도 아닌 까닭에 無意味한 命題(meaningless proposition)이며 그러므로 學的 對象이 될 수 없다는 主張이다.<sup>1)</sup> 이러한 Emotivist들의 主張은 道德的 價值判斷을 對象으로 삼아온 規範倫理學의 學的 成立을 否認하는 主張이다.

그러므로 本論考의 探究의 意義는 Emotivism의 倫理認識否定論을 論破하고 規範倫理學의 學的 成立이 可能함을 밝히려는 데 있다. 倫理學의 學的 成立의 可能性을 밝히려는 筆者의 理說을 定立하는 데 있어서 주로 R. B. Perry와 J. Dewey로부터 많은 暗示를 받았다. 그러나 理論의 內容은 筆者의 論理的 思索의 所産임을 밝혀둔다.

3. 倫理學이 學으로서의 可能性을 밝히려면 倫理認識否定論의 主張을 成功的으로 論破할 수 있어야 한다. 倫理學이 學的 可能性을 否定하는 現代의 強한 哲學的 勢力으로서는 論理實證主義의 倫理說인 Emotivism과 日當的 言語學派의 倫理說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Emotivism은 全的으로 倫理學이 學으로서의 可能性을 否定하나 日當的 言語學派의 倫理說은 倫理學이 ‘嚴密한 學’으로서의 成立은 否定하지만 그러나 倫理學이 學的 可能性을 全적으로 排除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Emotivism과는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立場은 倫理學이 學的 成立을 否定한다는 點에서 倫理認識否定論이다. 그러므로 倫理學이 學으로서의 成立 可能을 定立하려는 本論考의 試圖를 위해서 ① 倫理認識否定論은 어떠한 論據에 의하여 倫理學이 學的 成立을 否定하는가? ② 그러한 論據는 과연 妥當한가? 하는 點을 批判的으로 省察하고 ③ 그러한 批判的 立論의 結果로 나타나는 論理的 矛盾에 根據하여 倫理學이 學으로서의 成立 可能을 定礎하도록 하겠다.

## II

本章의 課題는 倫理認識否定論의 論據의 要旨를 밝히려는 데 있다.

1) A. J. Ayer, *Language, Truth and Logic*, p. 103 參照, New York' 1945 金泰吉, 倫理學, pp. 224~225 參照, 博英社, 1971

Emotivism이 倫理學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없다는 論據의 要點은 다음의 세가지의 立論에 立脚하고 있다.

1. 道德的 言辭(moral terms)는 非事實的 論理的言辭(nonfactual logical terms)도 아니요, 事實的 言辭(factual terms)도 아니기 때문에 道德的 言辭의 定義가 不可能하므로 道德的 發言의 眞僞를 言辭의 定義에 의하여 論理的으로 立證할 수도 없으며 또한 經驗的 事實에 의하여 檢證할 수도 없는 까닭에 倫理學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道德判斷은 嚴密한 意味의 判斷이 아니라 한갓 의견이나 命令 또는 希望, 恐怖 等の 主觀的 感情의 表明에 불과한 發言(utterance)이므로 전혀 客觀的 事實을 傳達해주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道德的 發言의 眞僞를 客觀的으로 밝힐 수 없기 때문에 倫理學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X는 옳다.’ ‘Y는 나쁘다.’ 따위의 道德的 言明은 비록 文法的 形式은 判斷의 形式을 갖추고 있지만 意味上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判斷이 아닌 發言者의 感情(emotion)의 表現이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同一한 感情을 갖도록 환기하는 主觀的 態度的 表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Carnap에 의하면 ‘殺生은 惡이다.’라는 評價는 얼핏 보기에 敘述的 表現이며, 그 言明의 形式이 判斷의 形式을 갖추고 있지만 意味上으로 보면 그 表現은 ‘殺生을 하지말라.’는 命令이며 전혀 事實을 敘述해주는 바가 없는 感情을 나타내는 ‘發言’(utterance)에 불과한 것으로서 判斷이 아니라고 보았다.

道德的 言明은 敘述的 意味(descriptive meaning)는 전혀 없고 情緒的意味(emotive meaning)만 있다는 立論은 倫理學의 學의 可能性을 否定하는 Emotivism의 核心的 論據이므로 이點을 分明히 하기 위하여 그 代表的 學者의 主張을 直接 밝혀두도록 하겠다.

Carnap에 의하면 :

“事實인즉 評價的 言明(value statement)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判斷을 내리기 쉽게하는 文法的 形式으로 表現된 命令文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떠한 事實도 敘述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證明될 수도 反證될 수도 없는 것이다.”<sup>2)</sup>

또한 A. J. Ayer도 Carnap과 마찬가지로의 主張을 하고있다 :

“네가 만약 누구에게 ‘네가 그 돈을 훔친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그저 ‘너는 그

2) A. J. Ayer, op. cit., p. 105 參照

3) R. Carnap, philosophy and logical syntax pp. 24~25, Kogan Paul, 1935 W. K. Frankena, Ethics, p. 105 參照 Prentice-Hall, Inc., 1973

#### 4 는 문 점

돈을 썼다'는 말로서 傳하는 바 이상의 事實을 알리지 않는다. 그 行動이 잘못이라고 덧붙임으로서 나는 그 行動에 관하여 조금도 더 알리는 바가 없다. 다만 나는 그 行動에 대한 나의 道德的 非難의 感情을 表明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미움에 가득찬 목소리로 '너는 그 돈을 훔쳤다.'고 외친 것이나 다름없다."<sup>4)</sup>

3. 倫理認識否定論이 主張하는 세계번 立論의 要石은 價値判斷도 一種의 判斷이기는 하나 事實判斷과는 그 論理的 性質이 다르기 때문에 그 眞僞를 밝힐 수 없으므로 倫理學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은 비록 emotivist이기는 하지만 Carnap이나 Ayer와는 그 立場을 달리하는 C. L. Stevenson이 그 代表의 人物이며, 日當的 言語學派의 Hare를 비롯한 大部分의 學者들의 共通的 主張이다.

C. L. Stevenson이나 Hare 등은 Ayer나 Carnap의 主張은 極端的 主張이라고 보았으며, 道德的 言明은 전혀 敘述의 意味(descriptive meaning)는 없고 情緒的 意味(emotive meaning)만을 갖고 있다는 點에 反對한다. Stevenson이나 Hare에 의하면 道德的 言明은 敘述의 意味와 情緒的 意味를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判斷의 資格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그 敘述의 意味와 情緒的 意味와의 關係가 必然的 制約性을 갖는 論理的 關係가 아니므로 敘述의 意味를 根據로 하여 情緒的 意味의 眞僞를 推論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5)</sup> 그러므로 道德判斷과 같은 方法으로 그 眞僞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嚴密한 學'으로서의 成立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一瞥한 論辯이 倫理學의 學的 成立을 否定하는 倫理認識否定論의 核心的 論據이다.

#### Ⅰ

上述한 倫理認識否定論의 세가지 命題가운데서 첫번째 命題 즉 道德的 言辭는 經驗的 事實語로 定義할 수 없다는 立論을 論破하기 위하여 그 否定的 媒介로서 本章에서는 우선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가 不可能하다는 主張의 立論을 좀 더 仔細히 論究토록 하겠다.

왜냐하면 道德的 價値概念에 대한 定義는 많은 哲學者들에 의하여 술한 定義가 試圖되었지만 G. E. Moore가 自然主義的 倫理說이 犯한 自然主義的 誤謬(Naturalistic fallacy)의 指摘이 있는 이후로는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는 不可能하다는 것이 論理實證主義를 비롯한 日當的 言語學派 뿐만 아니라 I. Dewey 등, 倫理認識肯定論(Cognitive theory of ethics)의 立場에 있는 많은 學者까지는 同意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道德的 價値의 定義에 관한 問題는 倫理學의 學的 成立의 可能性 與否를 判가름하는 關鍵이기도 하다.

4) A. J. Ayer, Language, truth and Logic, p. 108

金泰吉, 倫理學, p. 226

W. K. Frankena, Ethics, pp. 96~105 參照

5) C. L. 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p. 76 參照, New Heaven, 1944

R. M. Hare, The Language of Morals, pp. 15~20 參照, Oxford, 1952

道德的 價値概念을 定義할 수 없다는 古典的 代表로서는 R. price이며 現代의 代表者는 G. E. moore이다. 그러므로 道德的 言辭의 概念을 定義할 수 없다는 主張의 考察은 R. price와 G. E. moore를 典型的 代表로 삼고 論議토록 하겠다. 그 以外도 論理實證主義나 日常的 言語學派 및 一部의 自然論者들도 있지만 그들은 G. E. moore의 主張에 同意하는 立場이므로 이 두 사람 의 主張을 考察하는 것은 道德的 價値概念을 定義할 수 없다는 立場의 全體를 살펴보는 셈이 된다.

1. R. Price는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가 不可能하다는 主張의 根據로서, 道德的 價値概念은 單純하고 (Simple) 窮極의 (Ultimate)인 概念이라는 데 있다.<sup>6)</sup> 原來 참다운 定義란 概念의 內包를 分析하므로써 얻어지는 것인데 옳음(rightness)은<sup>7)</sup> 빨강이라는 觀念과 마찬가지로 單純하고 窮極의 觀念이므로 原理上 定義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單純觀念에는 오직 同義語가 있을 뿐 定義는 있을 수 없다. R. Price는 그러한 論辯의 正當性을 立證하기 위하여 終來의 많은 學者들이 試圖한 道德的 價値概念에 대한 定義가 수포로 돌아 갔음을〔同義語反復 (tautology)의 誤謬에 根據하여 立證했다.

예를 들면 功利主義者들은 ‘옳음’의 定義를 ‘有用한 行爲는 옳은 行爲이다.’ 基督教의 倫理說에 의하면 ‘神의 뜻에 따르는 行爲는 옳은 行爲이다.’ 等等 얼마든지 例示 할 수 있다. R. Price에 의하면 위에 命題들은 두가지 뜻으로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어떠한 行爲가 옳음이라는 價値를 担持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答하는 것이요, 둘째는 ‘옳음은 무엇을 意味하느냐’ 하는 옳음의 定義에 대한 答으로 볼 수 없다. 위의 命題들이 첫번째의 意味에 대한 答으로 使用된 것이라면 妥當하나 두번째의 意味 즉 옳음의 定義로서 使用된 것이라면 不當하다. 왜냐하면 ‘有用한 行爲는 옳은 行爲이다.’라는 命題가 옳음의 定義라면 ‘有用하다’와 ‘옳다’는 같은 뜻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有用한 行爲는 옳은 行爲이다.’라는 命題 대신에 有用한 行爲는 有用한 行爲이다, 또는 “옳은 行爲는 옳은 行爲이다”, 라는 명제로 바꿀 수가 있다. 이처럼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는 全部가 tautology라는 誤謬를 犯하고 있기 때문에 定義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定義는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것과 같은 전혀 無意味한 定義이며 嚴密히 定義라고 할 수 없다. 참다운 定義는 單純히 낱말풀이와 같이 主概念을 쉬운 말로 說明해 주는 辭典的 解釋이 아니고 다른 概念과의 뚜렷한 區別을 해 주는 內包에 의한 定義라야 한다.

R. Price가 밝힌 立論은 道德的 言辭를 事實語로 또는 道德判斷을 事實判斷으로 翻譯還元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준 卓見으로서 價値와 事實, 當爲와 存在는 그 論理的 次元이 다름을 분

6) R. Price, A Review of principal questions in Morals, p.41, Oxford, 1948 (金泰吉, 倫理學 p.116 에서 再引用) A Reveial

7) ibid., p.16 (金泰吉, 倫理學 p.117)

明히 했으며 G. E. Moore의 自然主義 誤謬(Naturalistic fallacy)의 길을 터 놓았다는 點에서도 그 功績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 R. Price의 理說을 뒷받침하는 現代의 代表的 學者가 G. E. Moore이다. 그는 事實에 根據하여 價値를 定義하려는 試圖 즉 道德的 價値概念을 事實概念으로 還元하여 經驗적으로 檢證할 수 있다는 自然主義의 倫理說이 含有하는 論理的 難點인 自然主義의 誤謬(Naturalistic fallacy)를 指摘함으로써 現代倫理學에 至大한 貢獻을 한 것으로 共認되고 있다.

自然主義의 誤謬란 自然的인 經驗的 事實로부터 論理的 推論에 의하여 價値概念을 이끌어 내는 自然主義의 倫理說의 矛盾을 指稱하는 概念이다.

Moore는 倫理學의 課題는 道德的 價値인 善(Good)의 概念을 明白히 밝히는 일이라고 보았다.<sup>8)</sup> Moore는 善을 價値概念의 典型으로 삼고 善의 概念을 定義할 수 있느냐의 問題를 주로 다루었다. Moore의 그러한 探求는 價値一般의 概念을 定義할 수 있느냐하는 探求이기도 하다. 그는 ‘善이란 무엇이나?’ (what is good?)하는 물음을 探求함에 있어서, 우선 이 물음의 意味가 무엇인가부터 따지고 들어간다. 이 물음은 “어떤 事物이 善인가?” (what things are good?)하는 물음과 區別해야 한다. 即 善을 묻고 있는 것이지 善한 것 (good things, the good)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을 定義하는 데는 여러가지 形態가 있을 수 있겠으나 眞定한 定義는 定義될 것 全體를 本質적으로 構成하고 있는 部分이 무엇인가를 叙述하는 定義라야 한다. 單純히 그 말이 무엇을 意味하려고 使用되는가만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아닌 定義, 이러한 定義는 그 問題되는 對象이나 觀念이 어떠한 複合的인 것일 때에만 可能한 것이다. 複合的인 全體를 그 構成部分으로 分解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眞正한 意味의 定義가 可能한 것이다. 그러면 善은 이러한 意味의 定義가 可能한 것인가? moore는 참된 意味의 그러한 定義는 不可能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善은 노랑이 單純한 觀念인 것과 마찬가지로 單純觀念 (Simple idea)이기 때문에 定義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善은 어떻게 定義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하여 moore는 ‘그것은 定義될 수 없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善을 定義하려는 從來의 모든 企圖는 定義의 本性에 관한 認識不足에서 나온 것이며, 所謂 ‘自然主義의 誤謬’를 犯한 것이라고 한다.

自然主義의 誤謬는 ‘善(good)’과 ‘善한 것(the good)’을 區別 못하고 ‘善한 것’에 대한 定義를 善의 定義로 看做할 때 犯하는 誤謬이다. ‘善’과 ‘善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moore는 ‘善’은 하나의 形容詞라고 본다. 그렇다면 ‘善한 것’은 善이란 形容詞가 적용될 主体(Substantive)이며 이러한 主体로서의 ‘善한 것’은 그 性質(quality)인 善과 同一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善한 것에는 善 以外の 다른 形容詞로 適用될 수 있다. 예컨대 ‘善한 것’이면서 동시에

8) G. E. Moore, principia Ethica, p. 37 參照, Cambridge press, 1956

9) ibid., p. 103

또한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럴 境遇에 사람들은 흔히 ‘이 다른 性質을 言及하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善을 定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卽 善과 이 다른 屬性을 同一視하여 自然主義者들은 ‘善은 快樂이다.’ 또는 ‘善은 欲求됨이다.’와 같은 定義를 내렸다. 이러한 境遇 ‘x는 快樂이다.’는 定義는 그 ‘善한 것’의 定義는 될 수 있어도 ‘善의 定義’는 아니다. 이것은 노랑과 같은 單純觀念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分明해진다. 우리가 노랑을 知覺하려면 어떤 一定한 빛의 振動이 우리의 눈을 刺戟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노란 것’이 일으키는 이 光振動 自体가 우리가 知覺하는 노랑은 아니다. 그것은 노랑에 對應하는 어떤 것인지 그 自体가 우리가 노랑이란 말로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光振動과 노랑을 同一視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노랑은 光振動이다.’라고 定義할 수는 없다.

G. E. Moore의 自然主義的 誤謬의 概念은 善한 것은 善이란 性質과 그 以外的 다른 性質—欲求됨, 또는 快樂을 攄—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善과 欲求 또는 善과 快樂을 同一視하여 ‘快樂은 善이다.’ 또는 ‘善은 欲求됨이다.’라는 따위의 定義가 갖는 論理的 誤謬를 指摘하는 것이다.<sup>10)</sup> 예컨대 ‘좋은 사과’, ‘좋은 집’, ‘좋은 책’이라고 할 때, ‘ 좋음’이라는 價値는 ‘ 좋음’이라고 評價되어지는 對象의 經驗的 性質을 指示하는 敘述의 味意를 包含하고 있다. 卽 모양이 둥글다든가, 빛깔이 빨강다든가, 또는 싱싱하고 맛이 있다든가 하는 그 사과의 性質을 敘述해 준다. 그래서 自然主義者들은 ‘ 좋음’이라는 價値의 定義를 ‘좋은 사과는 빛깔이 붉고, 싱싱하며 맛이 있는 사과를 말한다.’라는 식으로 定義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等邊三角形은 等邊이라는 性質과 等角이라는 性質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 ‘等邊은 等角이다.’라고 定義하는 것과 같이 誤謬라는 것이다.

G. E. Moore의 自然主義的 誤謬의 概念은 論理實證主義를 비롯하여 日常的 言語學派의 哲學者들의 全幅的 支持를 獲得하고 있다. G. E. Moore의 自然主義的 誤謬의 要旨는 결국 ‘이것은 좋은 그림이다.’를 ‘이것은 A, B, C, ……의 性質을 가진 그림이다.’라고 敘述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事實判斷이지 價値判斷이 아니므로 價値概念의 定義는 不可能하며 따라서 敘述的 意味와 評價的 意味는 論理的으로 無關한 것이라는 理說이다.

#### IV

위의 論議에서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는 內包에 依據한 참다운 定義가 不可能하다는 立論을 살펴 보았다.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가 重要視되는 理由는 道德的 價値概念을 事實概念으로 定義할 수 없다면 道德判斷의 眞偽는 事實判斷과 같은 方法으로 檢證할 수 없기 때문에 道德判斷을 對象으로 하는 倫理學의 學的 成立은 不可能하다는 結論에 이르며, 反對로 事實語로 還元

10) *ibid.*, pp. 13~14 參照

하여 定義할 수 있다면 道德判斷은 事實에 根據하여 그 眞僞를 經驗的으로 立證할 수 있으므로 倫理學의 學的 成立은 可能하다는 歸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道德的 價値概念을 內包에 依據한 事實語로 定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本章의 探求는 本論文의 成敗를 左右하는 關鍵이기도하다.

道德的 價値概念으로서 代表的인 것은 좋음 (good), 옳음(right), 해야함(ought)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概念은 ' 좋음 '이다. ' 옳음 '과 ' 해야함 '은 거의 같은 뜻이며, ' 좋음 '의 概念을 媒介로 하여 定義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道德的 價値概念인 ' 좋음 '의 定義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道德的 價値는 어떻게 成立하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價値論上에는 傳統的으로 對立되는 두가지 立場, 即 價値主觀主義와 價値客觀主義가 있다. 價値가 어떤 有情的 存在의 感情, 欲求, 意見 등의 마음가짐을 떠나서 그 自体 獨立의인 實在性을 갖느냐, 또는 어떠한 主体의 마음가짐 내지 經驗에 依存하는 것이냐는 問題이다. 이러한 두가지 立場 가운데 價値實在論인 客觀主義는 論理的 妥當性이 稀薄한 主張이다. 價値實在論의 代表的 立場은 古典的 學者로서는 Platon을 비롯하여 Aristoteles가 있으며 그리고 現代에 있어서는 G. E. Moore를 중심으로 한 直覺論者들 (intuitionists)이 있다. 이들은 價値는 人間의 主觀的 마음가짐과는 無關하며 對象自体에 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價値實在論者들은 價値의 本性을 看過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점은 欲求나 感情이라고는 전혀 없이 物質만으로 形成된 純粹한 物質世界를 假想함으로써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으며, 옳을 것도 그를 것도 없는 것이다.

價値는 主觀的 마음과의 關係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事實은, 모든 價値判斷에서 發見된다. 모든 價値判斷은 一般的 公式으로 表現하면 'x는 價値를 가지고 있다'가 된다. 이 判斷의 內容을 따져 보면 그 속에 主觀에 대한 關係가 包含되어 있는 것을 發見할 수 있다. 即 'x가 價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x가 그 누구에게 대해서 價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價値라는 概念 중에는 價値를 體驗하는 어떤 主觀과의 關係가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價値는 評價하는 主觀과의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主觀主義는 價値의 發生을 人間의 欲求나 感情 내지 意見과의 關係에서 即 主觀的 마음과의 關係에서 解釋하려는 立場이다.

上述한 強議에 의하여 分明해졌듯이 價値의 定義를 위한 試圖는 價値가 人間의 마음가짐과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밝히려는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릇 價値는 主觀的인 마음가짐과 客觀的인 對象과의 關係에서 成立되는 것이다.<sup>11)</sup> 그러므로 價値의 定義는 어떠한 主觀的인 마음가짐과 客觀的인 要素에 의하여 發生하는 것인가를 把握함에 의하여 그 길이 열리리라고

11) R. B. perry 와 J. Dewey는 價値는 主觀과 客觀과의 關係에서 成立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R. B. perry, General Theory of Value, p. 115 參照, Harvard Univ. press, 1954  
J. Dewey는 金泰吉, 倫理學 pp. 204~205 參照



생각한다.

一般的으로 學者들은 價値成立의 根據를 意欲이나 感情과 對象과의 關係로서 비롯되는 것이 라고 보는 立場이 優勢하다. 意志와 對象과의 關係로서 價値가 成立한다고 보는 立場은 主意主義이요, 感情과 對象과의 關係로서 價値가 成立된다고 보는 立場은 主情主義이다. 이처럼 대체로 學者들은 價値成立의 主觀的 要因은 意志나 感情이라고 보고 있으며, 知性은 價値性立에는 直接 參與하지 않는 것이라는 見解가 強하다.

價値成立의 精神的 機能은 價値의 種類에 따라 差異가 있다. 價値에는 많은 種類가 있으나 本論考의 主要한 關心事는 倫理的 價値의 概念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倫理的 價値를 中心으로 하여 價値의 成立過程을 論議하도록 하겠다.<sup>12)</sup> 道德的 價値의 發生은 意志의 目的 志向性에서 基因한다. 意志의 本性은 目的志向性이다. 그러한 事實은 人間의 行動은 어떠한 行動이든 有意的인 行動인 한 어떤 目的을 갖고 있다는 事實로서 分明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Aristoteles가 人間의 行動을 目的論的 體系라고 指摘한 周知의 事實에 依據하더라도 自明하다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우리는 意志의 ‘目的 志向性’을 欲望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道德的 價値의 起源은 意志의 欲望에서 비롯된다. 美的 價値는 意志의 欲求가 없이도 直接 感情에서 發生한다. 그러한 事實은 우리가 어떠한 景致를 보거나, 어떠한 音樂을 들을 때 전혀 意欲한 事實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낀다는 心理的 事實을 反省해 보면 分明해진다. 그러나 道德的 價値는 반드시 意志의 介入에 根據한다. 意志는 道德的 價値發生의 先驗的 制約이다. 道德的 價値의 發生은 무엇을 欲求하는 意志의 活動에 基因한다는 點은 우리들의 日常의 生活經驗을 통해서 볼 때 더욱 分明해진다. 自然的인 美的 價値를 除外하고는, 우리는 우리가 願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고 評價를 하며, 무엇인가 關心있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評價를 하는 것이지 전혀 意欲되지 않는 것에는 無關心하다는 境遇를 보더라도 分明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意志의 介入이 없는 對象은 沒價値的 事實性에 불과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意志는 本性上 ‘目的 志向性’이다. 意志는 原來 缺乏의 充足에 대한 欲求이다. 意志의 本性은 原來 自己에게 없는 것 即 自己缺乏을 補充하려고 하는 欲求이다. 그러한 欲求의 充足에 대한 느낌이 感情이다. 意志는 欲求의 充足으로 부터 快, 不快의 感情을 體驗한다. 意志와 感情은 表裏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意欲이 成就되었을 때는 반드시 快感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意志의 欲求는 感情의 느낌을 必然的으로 隨伴한다. 意志의 目的 志向性의 欲求가 充足되었을 때의 感情의 느낌이 다름아닌 非道德的인 意味로서의 價値이다.

그러므로 心理的인 事實的 價値發生의 精神的 根源은 意志와 感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筆

12) 價値一般의 成立過程은 筆者가 濟大 教養過程 論文集 第五集에서 다루었음으로 參照하시기 바라며 本論文에서는 道德的 價値에 局限해서 다루었다.

者는 意悲와 感情의 두 精神의 機能을 합하여 ‘關心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여기서 留意해야 할 것은 R. B. Perry의 關心의 概念과는 다르다는 것이다.<sup>13)</sup>

關心은 意志의 欲求에 대한 感情的 느낌이기 때문에 關心 그 自体는 心理的 事實性이며 따라서 關心만으로는 道德的 價値는 발생하지 않는다. 道德的 觀點에서 볼 때는 關心은 어디까지나 沒價値的인 心理的 事實性에 불과하다.

規範倫理學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行爲들이 옳으며 right), 어떠한 目的들이 좋은가를 結定해주는 原理에 관한 探究라는 데 同意를 한다면 道德的 價値는 關心에 대한 選擇에서 發生한다.

道德的 價値는 무엇에 대하여 關心을 가져야 하느냐, 어떠한 關心이 옳으냐를 選擇하는 過程을 통해서 成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德的 價値의 成立에는 다른 精神作用의 存在를 前提하지 않을 수 없다.

大部分의 自然主義者들은 欲求의 充足은 快感을 주므로, 그러한 心理的 事實性和 道德的 價値를 混同한 나머지 ‘善은 快樂이다.’ 또는 ‘善은 欲求됨이다.’ 等等의 定義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들은 欲求됨(desired)이라는 말과 欲求할만한(desirable)—바람직한—을 混同한 것으로서 道德的 價値의 本性을 看過한 것이다. 바로 그點은 이미 G. E. Moore가 自然主義的 誤謬(Naturalistic fallacy)를 指摘함으로써 確然해진 것이다.

道德的 價値는 바람직한 關心이 무엇인가를 選擇하는 目的自体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關心을 選擇하는 精神의 機能은 무엇인가?

規範倫理學은 무엇을 해야 하냐, 어떻게 行爲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答하는 것을 課題로 삼는다. 그러므로 道德的 價値는 目的에 대한 決斷 및 行爲의 選擇에 關聯되는 것이기 때문에 知性的 思慮가 必然的으로 介入되지 않을 수 없다. 바람직한 關心을 選擇하는 精神의 機能은 知性이다.

人間의 道德的 生活은 無分別한 關心의 充足過程이 아니라 올바른 生活을 志向하는 데 있다면 무엇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行動이 옳고 그른가를 判斷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道德的 價値는 필히 知성이 可能한 行爲들 중에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比較選擇하는 知的 判斷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知성이 選擇하는 判斷作用에 의하여 成立하는 것이 다름아닌 道德的 價値이다. 그러므로 道德的 價値는 知性的 選擇한 關心에 대한 特殊한 情緒的 즐거움이다.<sup>14)</sup> 대체로 많은 學者들은 價値는 주로 意志나 感情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보며, 知성을 介入

13) R. B. Perry는 感情, 欲求, 意見等の 마음가짐을 묶어서 關心이라고 表現하고 있지만 筆者는 感情과 欲求만을 묶어서 關心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14) J. Devey도 欲求와 感情과 같이 知的 熟考도 價値成立을 위하여 必要한 것이라고 보며, 價値란 ‘知性的 作用을 통해서 얻어진 즐거움이다’라고 했다.

J. I. ewey, The Quest for certainty, p246, London (Unwin Brothers press), 1930 (金泰与, 倫理學, p. 207)

하지 않는 것이라는 見解가 優勢하다. 그러나 그러한 主張은 非道德的 價値에는 適用될 수 있지만, 道德的 價値에는 適用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見解는 道德的 價値와 非道德的 價値를 混同한 것으로서 道德的 價値의 特殊한 性格을 看過한 것이다.

上述한 筆者의 立論의 正當性은 道德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省察함으로써 더욱 確然히 될 것이다. 道德의 本質은 보다 나은 價値의 追求에 있다. 人間의 삶은 不斷히 周圍에 대한 關心을 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Heidegger도 ‘世界內存在’(in-der-Welt-sein)인 現存在(Dasein)의 生活은 存在論的으로 還元하면 一次的으로 Sorge로 還元된다고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가 環境안에 살면서 周圍를 돌아보고 周圍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서 (Sorgen) 살아 간다. 다시 말하면 關心 속에서 살아 간다. 關心(sorge) 중에서 周圍의 事物에 대한 關心이 Besorge요, 周圍의 사람들에 대한 關心이 Fürsorge이다 人間生活은 Besorge이든지 Fürsorge이든지 存在論的으로 還元하면 一次的으로 Sorge로 還元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不斷한 關心의 連續이라면, 그러한 關心에는 나은 것과 못한 것 즉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은 嚴然한 事實이다. 우리는 누구나가 보다 나은 價値를 追求코자 한다. 그러므로 道德은 關心과 關心이 衝突했을 때 비로서 發生한다. 그러나 關心의 衝突만으로 道德成立의 充分條件은 될 수 없다. 道德은 關心의 衝突이 和解할 것을 必須條件으로 삼는다. 關心의 衝突은 道德의 出發點이라면 關心의 調和는 道德의 理想이다.

Perry는 이 點을 欲求의 衝突이라는 概念을 가지고 밝혀 주고 있다. Perry에 依하면, 한 個人에 있어서도 欲求와 欲求는 衝突하고, 個人과 個人, 社會와 社會, 國家와 國家에 있어서도 내 欲求와 네 欲求는 끊임없이 衝突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끊임없는 衝突을 除去하고 衝突된 欲求를 하나의 調和된 全體으로 統一시킴이 道德의 使命이라는 것이다.<sup>15)</sup> 道德은 關心의 衝突과 그것의 合理的 調和를 理想으로 삼는 것이라면 關心의 衝突에 있어서 어떠한 關心이 보다 나은 關心인가를 決定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知的 判斷은 必然的으로 介入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道德的 價値는 어떻게 成立되는가를 살펴보았다.

上述한 立論의 要旨을 우선 要約해보면, 道德的 價値는 i) 關心에서 비롯되며 ii) 關心 그 自体는 心理的 事實性으로서 道德的으로는 沒價値的이며 iii) 衝突된 關心에 대한 知性的 選擇에 의하여 成立한다고 묶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道德的 價値의 定義를 試圖할 段階이다.

一切의 價値는 主觀과 客觀과의 關係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의 立論의 要旨과 關聯하여 道德的 價値概念의 定義를 내리면 아래와 같은 命題를 導出할 수 있다.

15) R. B. Perry "The conception of moral Goodness", Philosophical Review, XVI p. 153 參照 (金泰吉, 倫理學, pp. 195~196)

‘道德的 善은 選擇할만한 關心의 對象이다.’

위의 命題는 道德的 善에 대한 充分한 定義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道德的 善은 選擇할만한 關心의 對象이라면 어떠한 關心이 選擇할만한 關心인가를 아직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道德的 表準을 包含하는 定義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課題는 道德的 表準을 밝히고 따라서 道德的 表準을 包含하는 참된 定義를 試圖하는 일이다.

道德은 關心의 衝突로부터 出發하고 關心의 全體的 調和를 理想으로 하는 것이라면 道德的 表準은 關心의 全體的 調和와의 關係에서 定立해야 한다. 그러한 觀點에서 道德的 表準을 規定하면 ‘道德的 表準’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이라고 定立할 수 있다. 따라서 ‘選擇할만한 關心이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다.’라고 推論될 수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功利主義의 倫理說은 비록 善의 定義에 대해서는 自然主義의 誤謬를 犯하고 있지만 道德的 標準에 관한 그들의 主張은 正當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道德的 標準에 관한 위의 立論에 根據하여 道德的 善을 再次 定義하면 ‘道德的 善은 選擇할만한 關心의 對象이다.’라는 定義 대신에 ‘道德的 善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다.’라는 命題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道德的 善에 대한 참다운 定義는 ‘道德的 善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다.’라고 歸結지을 수 있다. 따라서 道德的 善 以外的 道德的 價值概念인 옳음(right) 및 해야할(ought)도 道德的 善의 定義에 依據하여 그 定義를 論理的으로 推論할 수 있다.

옳음 및 해야함은 거의 같은 뜻이며 그 強度에 약간 差異가 있을 뿐이다.<sup>16)</sup> 道德的 命題는 當爲的 命題이기 때문에 道德的 意味로서의 옳음은 勸獎의 意味를 包含한다. ‘이 行爲는 옳다.’라는 言明은 ‘이 行爲는 해야 한다.’라는 勸告의 意味가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음’과 ‘해야함’은 거의 같은 뜻이며 그 差異는 ‘해야함’은 ‘옳음’보다 積極的 勸告의 意味가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옳음’의 定義는 곧 ‘해야함’의 定義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옳음의 定義를 내리면 ‘옳음은 道德的 善을 助長한다.’는 뜻이다. 아직까지 本章에서 試圖한 道德的 價值概念의 定義에 대한 筆者의 立論의 正當性을 밝힘으로써 本章의 論究를 마치고도록 하겠다.

G. E. Moore를 비롯한 直覺論者들이나 또는 論理實證主義者들 그리고 日常的 言語學派에 屬하는 學者들은 물론, 심지어 J. Dewey까지도 道德的 價值概念은 內包에 의한 참다운 定義는 不可能

16) R. Price, G. E. Moore, W. D. Ross, R. B. Perry, B. Russell 등은 內容上의 差異는 약간 있지만 대체로 옳음 및 해야함은 거의 同義語라고 보았다.

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筆者의 定義는 內包에 依據한 定義이므로 論理的 要求를 滿足시켜주는 참된 定義라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道德的 善’을 主觀과 客觀과의 關係로서 定義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主義的 誤謬도 避할 수 있으며 또한 道德의 標準도 包含하고 있는 定義이므로 倫理認識否定論을 論破하기에 充分하고 따라서 規範倫理學의 學的 需要도 充足시킬 수 있다.

올바른 定義는 論理的 要求를 滿足시킬 수 있는 定義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論理的 定義(logical definition)라야 한다. 定義는 概念의 內包를 判明케 해주는 것이다. Aristoteles에 의하면 論理的 定義는 ‘種差 + 最近類’라고 했다. 올바른 定義는 定義하고자 하는 概念을 主語로 삼고 種差와 類를 客語로 하는 論理的 定義라야 한다. 筆者의 道德的 善의 定義는 이러한 定義의 論理的 要求에 符合되는 것이다.

‘道德的 善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다.’라는 定義는 ‘最大多數의 調和된’이라는 種差와 그 種差를 包括하는 ‘關心’이라는 最近類를 包含하고 있다.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이라는 것은 關心 一般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關心 가운데서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만을 意味하므로 그것은 嚴然히 種差와 最近類가 結合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定義는 對象과의 關係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論理的 定義 以上の 正當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 V

本章의 課題는 倫理學이 學으로서 成立할 수 없다는 두번째의 立論을 論破하려는 데 있다.

Emotivist들은 道德的 言明은 發言者의 主觀的 感情의 表明 내지 듣는 者로 하여금 同一한 感情을 誘發케 하는 것으로서 命令 또는 외침이 그렇듯이 진혀 客觀的 事實을 言明해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眞僞를 가릴 수 없는 發言(utterance)에 불과하며 참다운 意味의 判斷(judgment)이 아니라는 論辯에 대한 反駁을 試圖하는 데 있다.

이 두번째의 立論에 대한 反駁은 前章에서 이미 밝혀진 道德的 善의 定義가 이루어짐으로써 저절로 論破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道德判斷은 無意味한 發言이 아니라 有意味한 判斷이라는 筆者의 立論의 正當性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하여 筆者의 主張과는 差異가 있으나 Emotivism에 대한 다른 學者들의 論駁을 批判적으로 考察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筆者의 見解는 다음 章에서 間接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1. J. Dewey에 의하면 道德判斷은 命令, 외침같은 情緒的 意味(emotive meaning)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情緒的 意味가 안으로는 敘述的 意味를 包含하고 있으므로 情緒的 意味도 命題의 性質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判斷의 一種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J. Dewey는 命令 또는 울부짓음, 손짓, 몸짓도 그것이 故意的인 境遇에는 무엇인가를 他人에

17) J. Dewey, Theory of Valuation, p.11 參照, Chicago, 1939

게 通知하는 一種의 信號로서 社會的 性格을 띠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도 一種의 命題에 比等한 言語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어린이가 무서운 개가 오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다면 그 울부짖음은 무서운 개가 온다는 事實을 알립니다, 또한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危險하다는 豫言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種의 울부짖음도 命題의 性質을 包含하는 것으로서 社會的 性格을 띠는 것이다.<sup>18)</sup> 또한 命令도 具體의 狀況下에서는 그 狀況內의 現存의 事態를 알려줌과 동시에 未來의 豫言을 包含하고 있다. 예컨대 ‘病院에 가보아라.’라는 命令은 被命令者의 健康이 좋지 못하다는 事實을 알려줌과 동시에 病院에서 治療를 받으면 健康이 回復될 것이라는 豫言을 包含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命令도 命題의 性質을 안으로 包含하는 一種의 判斷이라는 것이다.<sup>19)</sup>

위의 J. Dewey의 論議는 一般的인 感情의 表明 내지 命令이 判斷이라고 할 수 있다는 立論으로서 是를 糶통하나 道德的 意味로 使用된 외침 또는 命令도 判斷이라고 할 수 있다는 立論으로서는 不充分하다. 왜냐하면 ‘에이, 나쁜 새끼!’라는 外침이나 ‘約束은 지켜야한다.’라는 道德的 言明은 單純히 事實에 대한 느낌을 表現하는 非道德的 外침과는 다르며 또한 一般의 命令의 意味와도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떠한 어린이가 무서운 개가 오는 것을 보고 울부짖을 때, 그러한 울부짖음은 무서운 개가 온다는 事實을 叙述함에 불과하고 道德的 意味의 價値評價와는 無關한 것이다. 그리고 病院에 가보아라는 命令도 ‘健康을 回復하려면’이라는 이미 주어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과 關聯된 命令으로서 道德的 意味와는 無關한 叙述的 命令이다. 道德的 命令은 手段에 관한 叙述的 命令이 아니라 目的 自体를 結定하는 當爲의 命令이다.

그러므로 J. Dewey의 立論은 Emotivism을 論破하는 論據로서는 不充分하지만 여하튼 命令이나 外침도 命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서 그 意義가 있다하겠다.

2. 다음에 C. L. Stevenson의 見解를 살펴보면 그는 道德判斷은 嚴密한 意味의 判斷이 아니라 참될 것도 거짓될 것도 없는 한갓 發言(utterance)에 불과하다는 A. J. Ayer나 R. Carnap의 主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Stevenson은 道德判斷에 叙述的 意味가 있음은 疑心의 餘地없는 事實이나, 그것만이 道德判斷에 包含된 意味의 全部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道德判斷의 意味는 事實判斷이 갖고 있지 않는 情緒的 意味(emotive meaning)가 있으므로 事實判斷보다도 더욱 더 ‘意味있는 命題’(meaningful proposition)라는 것이다. 道德判斷에는 事實判斷이 가지고 있는 叙述的 意味(descriptive meaning)가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情緒的 意味(emotive meaning)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特性이라고 보았다.<sup>20)</sup>

18) *ibid.*, p. 11 參照

19) J. Dewey, "The Logic of judgments of practice", *The journal of philosophy* XII p. 505, 1915, (金泰吉, 倫理學, p. 211 參照)

20) Stevenson, *Ethics and Language*, p. 42 參照, New Heaven, 1944

또한 Ayer나 Carnap의 主張을 論駁한 代表의 人物로서 日當의 言語學派의 R. M. Hare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Ayer나 Carnap이 命令的 發言 내지 規定的 言明의 機能은 사람의 行動 내지 感情에 影響을 미치는 主觀的 感情의 表明에 불과하다는 主張에 대하여 Hare는 그들의 見解는 明確히 區別해야 할 두가지 事實을 混同하고 있다는 것이다. 卽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르는 것’(telling someone to do something)과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것’(getting someone to do something)을 區別하지 못한 誤謬를 犯하고 있다. 命令的 發言 내지 道德的 言明은 本來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르는 데 있는 것이요, 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命令的 發言도 그 本來의 뜻이 남에게 무엇을 알림에 있음으로 ‘叙實的 言明’(indicative statements)과 다를 바가 없지는 것이다.

Hare는 命令을 言明 卽 判斷인 點을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命令(Commands)도……言明(statements)과 마찬가지로, 理性的 行爲者가 묻는 물음에 對答코자 함이 그 本來의 뜻인 것이며, 言明과 마찬가지로 論理的 規則에 의하여 支配되는 것이다.”<sup>21)</sup>

上述한 바와 같이 Stevenson이나 Hare가 道德判斷은 ‘情緒的 意味’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叙述的 意味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 것은 Emotivism의 主張 卽 道德判斷은 無意味한 判斷이라는 것을 論破하는 立論으로서는 그 意義가 있으나 道德的 言明의 情緒的 意味(emotive meaning)를 解釋하는데 있어서는 Emotivism과 마찬가지로 倫理學이 學的 成立의 可能性을 保障해주는 立論은 못된다.

Hare는 약간 다르지만 특히 Stevenson은 道德的 命題의 情緒的 意味를 解釋하는데 있어서 知的 思慮가 介入되지 않는 單純한 主觀的 態度的 表明에 불과하다고 본 점은 道德的 意味로서 使用된 情緒的 意味는 特殊한 道德感의 表明이므로 一般的 感情의 表明이라는 그 性質이 다르다는 點을 看過한 것이다.

道德判斷은 判斷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與否에 關한 J. Dewey나 C. L. Stevenson, 그리고 Hare의 立論은 不充分하지만 그러나 Emotivism의 主張을 論破하기에는 充分하다할 것이다.

筆者의 道德判斷에 대한 見解는 처음에도 밝혔듯이 다음 章에서 道德判斷의 眞僞를 客觀的으로 밝힐 수 있느냐의 與否를 다루는 過程에서 自然히 밝혀질 것이다.

#### IV

本章에서는 Emotivism의 세 번째 立論을 論破하고 倫理學이 學으로서 成立이 可能함을 立證

21) R. M. Hare, The Language of Morals, pp. 15 ~ 16, Oxford, 1952, (金泰吉, 倫理學, p. 278)

하려는 데 있다

Emotivism은 道德判斷은 判斷이라고 하더라도 事實判斷과는 그 論理的 性質이 다르기 때문에 道德判斷의 眞僞는 經驗的으로 立證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倫理學은 學으로서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主張은 Hare나 Stevenson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이꽃은 붉다'라는 判斷은 事實判斷이기 때문에 그 判斷의 眞僞는 經驗的으로 檢證할 수 있고 따라서 普遍妥當性을 가진다. 그러나 '約束은 지켜야 한다'라는 道德判斷은 '이꽃은 붉다'라는 事實判斷과 같은 方式으로 그 眞僞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Nero는 로오마의 皇帝였다'라는 判斷과 'Nero는 惡漢이었다'라는 判斷에서 볼 수 있듯이 'Nero는 惡漢'이라는 判斷을 Nero는 '로오마의 皇帝'라는 判斷과 마찬가지로의 方法으로 그 眞僞를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留意해야 할 것은 敘述的 道德判斷과 規範的인 道德判斷과를 混同해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敘述的 道德判斷은 道德現象의 事實을 敘述하는 것으로서 事實科學이며 그러한 것은 社會學이나 心理學의 對象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道德判斷은 敘述的 道德判斷일 경우와 規範的인 道德判斷일 경우에는 그 意味의 論理的 性格이 다르다. 위의 命題가 敘述的 道德判斷으로 使用되어진 境遇에는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意味는 거짓말은 現存의 道德의 規範에 違背되므로 거짓말은 道德의 非難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道德의 事實性 敘述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命題가 規範的 道德判斷으로 使用되어질 境遇에는 그 判斷의 意味는 '거짓말은 말아야한다'라는 뜻이며, 그 判斷은 當爲의 要請과 勸獎의 意味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倫理認識否定論은 道德的 現象에 관한 過去와 現在의 事實을 敘述하는 '敘述的 倫理學'의 學的 成立을 否定하는 것이 아니라 規範倫理學의 學的 成立을 否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論理實證主義들이 말하는 道德判斷은 當爲 내지 勸獎을 포함하는 規範的인 意味의 道德判斷이다. 論理實證主義者들은 規範的 道德判斷은 事實判斷과는 論理的 性質이 다르기 때문에 道德判斷은 事實判斷으로 還元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眞僞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倫理認識否定論者의 主張을 論破할 수 있으려면 普遍的인 道德의 表準을 認定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普遍的 道德의 表準을 포함한 道德의 善의 定義를 定立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道德的 善의 定義는 倫理學의 基礎를 세우는 일이며, 따라서 倫理學의 學的 成立의 成敗를 左右하는 要石이다. 그래서 筆者는 道德判斷의 眞僞를 밝힐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 豫備的 探究로서 第四章에서 道德的 善의 定義를 定立했던 것이다.

第四章에서 定立한 道德的 善의 定義는 '道德的 善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象對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定義에 依據하면 모든 道德判斷의 意味는 確然해지며, 모든 道德判斷은



事實判斷으로還元할 수 있다.

예를 들면 'Y는 道德的으로 善하다'라는 道德判斷은 'Y는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다. 또한 'X는 惡다'라는 道德判斷은 'X는 道德的으로 善을 助長한다'는意味이다. 그리고 'A가 B보다 道德的으로 낫다'함은 'A는 B보다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例로 알 수 있듯이 모든 道德判斷은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나 事實判斷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道德判斷의 眞僞를 가릴 수 있는 可能性 및 方法에 關한 問題들은 事實判斷의 境遇와 다를 바가 없다. 모든 事實判斷의 眞僞가 科學的 方法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면 道德判斷의 眞僞도 科學的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X는 善하다'라는 命題는 'X는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라는 事實判斷으로還元할 수 있기 때문에 X가 과연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의 與否는 經驗的 方法에 의하여 蓋然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檢證(verification)의 結果가 참이라면 'X는 善하다'라는 道德判斷은 참된 判斷이라고 할 수 있고, 그 檢證의 結果가 事實과 다르며는 그 道德判斷은 虛偽라고 할 수 있다.

事實의 眞僞를 科學的 方法에 의하여 經驗的으로 밝히는 일은 事實科學의 對象이다. 卽 道德判斷의 事實의 意味의 眞僞를 밝히는 것은 社會學이나 心理學의 對象이다. 倫理學은 오직 道德의 原理를 規明함을 目的으로 삼는 純粹한 理論的 探究로서 敘述科學(descriptive science)이 아니기 때문이다. X는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느냐의 事實與否는 社會學的 調查方法에 의하여 可能하다. 주로 心理學이나 社會學에서 많이 研究되는 價值觀의 調查는 卽 韓國大學生의 價值觀 또는 韓國人의 價值觀에 關한 研究 等等은 어떠한 價值들을 바람직한 價值들이라고 실지로 보고 있느냐하는 事實의 問題를 把握하는 데 있는 것이다. 倫理學은 哲學의 一分野로서 순수한 理論的인 原理探究를 그 使命으로 하기 때문에, 道德判斷을 事實判斷으로還元할 수 있다는 論理的 根據를 提供해주는 것으로서 本論文의 所期의 目的은 達成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論述의 過程에서 倫理學이 學으로서 成立할 수 있다는 것은 밝혀진 셈이다.

이제, 筆者의 論辯의 要旨를 要約하도록 하겠다.

- i) 모든 道德判斷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는 判斷이다.
- ii) 그러므로 모든 道德判斷은 事實判斷으로還元될 수 있다.

모든 事實判斷은 經驗的 方法에 의하여 蓋然的으로 立證할 수 있기 때문에 倫理學이 '學'으로서의 成立이 可能함을 三段論法의 形式으로 定立하면 다음과 같다.

- i) 經驗的 方法에 依하여 蓋然的으로 立證할 수 있는 모든 判斷은 科學의 對象이 될 수 있다.
- ii) 모든 道德判斷은 經驗的 方法에 의하여 蓋然的으로 立證할 수 있다.

iii) 그러므로 모든 道德判斷은 科學의 對象이 될 수 있다.

以上으로서 '倫理學이 學으로서 可能한가?'하는 本論文의 探求의 目的은 充分히 達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筆者의 理說의 正當性을 確然히 하기 위하여 豫想되는 反論을 論駁하는 것으로서 本論文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尙당 道德의 標準으로서 設定한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에 대한 反論을 豫見할 수 있다.

或者는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는 認識論的으로 立證된 事實이 아니며 그것은 筆者의 道德的 信念에 根據한 一種의 價値判斷이기 때문에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는 普遍的인 道德의 原理로서 客觀性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가 認識論的으로 立證되지 않는 筆者의 信念에 基礎하고 있다는 主張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信念에 根據하는 原理가 無意味하다고는 볼 수 없다. 모든 窮極의 原理는 信念에 依據하는 假說(assumption)이다. 그것은 事實判斷을 對象으로하는 事實科學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學問이든 그 學問의 根本的 原理는 認識論的으로 立證할 수 없다. 그것은 理性的 直覺(intuition)에 依據할 수 밖에 없다. 道德的 原理만이 아니라 모든 第一原理는 理性的 直覺에 依據한 明證的 知識이다. 그러므로 筆者가 내세운 道德의 原理가 認識論的으로 立證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한 反論은 學問一般의 成立을 否定하는 反論으로서 전혀 無意味하다. 問題는 道德的 信念에 의거하여 定立한 道德의 原理들 가운데 어떠한 原理가 論理的 整合性을 가지는 妥當한 原理인가 하는 것이다. 가장 妥當한 原理를 判定하는 基準은 첫째 論理의 要求에 滿足을 주어야 하며 둘째 現實的 道德觀과 道德的 理想에도 符合되어야 한다. 이러한 基準에서 볼 때 筆者의 道德的 原理는 論理的 要求와 現實的 要求에 모두 符合되는 것이다.

그 理由로서는 i) 道德的 價値의 보편성을 保障하는 原理이다. 規範倫理學의 學的 目的은 普遍的 道德의 原理를 밝히는 데 있다.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 原理는 道德判斷의 客觀性을 立證해주기 때문에 普遍的인 道德의 表準을 保障해 준다.

ii) 倫理認識否定論을 論破할 수 있는 原理이며 따라서 規範倫理學이 學的 成立을 保障해주는 原理이다.

iii) 倫理學的 絕對論과 倫理學的 相對論을 調和해주는 原理이다. 普遍的 道德의 標準을 提供해주므로 倫理學的 絕對論도 滿足시켜주며 그리고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은 固定不變의인 것이 아니라 可變的이므로 道德的 基準은 時代에 따라 變하는 것이라는 倫理學的 相對主義의 立場과도 矛盾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原理는 倫理學的 絕對論과 相對論을 동시에 滿足시켜주는 原理이다.

vi) 모든 價値觀의 對立에 있어서 理論的인 眞僞를 가릴 수 있는 原理이다. 우리는 제마다

價値觀을 가지며 사람에 따라 千差萬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價値觀 및 人生觀이 다른 境遇에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評價할 수 있는 理論的 基準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一般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原理는 어떠한 人生觀 및 道德觀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個人的 境遇에 있어서나, 또는 社會 對 社會의 境遇에 있어서나, 國家 對 國家의 境遇에 있어서 까지도 어떠한 價値觀의 바람직한 것인가를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原理는 모든 人生觀, 道德觀, 社會觀, 國家觀의 對立을 解消하고 調和할 수 있는 理論的 可能根據를 마련해주는 原理이다. 人類의 共同的 理想은 보다 더 바람직한 價値의 追求와 그 實現에 있다면, 이 原理는 모든 對立되는 價値觀의 調和를 爲한 理論的 基礎를 提供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留意해야 할 點은 이 原理가 現實的으로 對立되어 있는 道德觀이나, 社會觀이나, 國家觀을 現實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主張이 아니라 그러한 現實的 對立의 調和와 解消를 爲한 理論的 可能根據를 提供한다는 意味이다.

그러므로 現實的으로 볼 때 社會마다 社會觀이 다르며, 國家마다 國家觀이 다르다는 現實的인 事實性에 根據하여 普遍的인 價値의 基準을 否認하는 主張은 理論的 妥當성이 稀薄하다.

v) 이 原理는 民主主義의 社會理念은 물론 社會主義의 社會理念과도 符合되는 原理이다.

民主主義는 功利主義의 倫理觀에 根據한 것으로서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 保障된 福祉社會를 그 理念으로 삼는다는 點에서 이 原理와 符合되며 또한 社會主義도 萬人의 幸福이 保障된 社會를 그 理念으로 삼는다는 點에서 이 原理와 符合된다. 여기서 誤解해서는 안될 點은 社會主義의 國家들이 現實的으로 萬人의 幸福된 社會의 實現을 志向하고 있다는 事實性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理論的인 理念만을 말하는 것이다. 現實的으로 볼 때 大部分의 社會主義의 國家들은 그 理念과는 달리 萬人의 幸福은 고사하고 少數의 獨裁者들만의 幸福을 爲하여 最大多數의 사람들은 人間以下의 奴隸로 轉落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vi) 이 原理는 人類가 志向해야 할 共同的 理想을 提供해주는 原理로서 規範倫理學의 要求에 符合된다.

人類는 오랜 세월동안 萬人의 幸福된 福祉社會의 建設을 理想으로 삼아왔으며 그것의 實現을 爲하여 不斷히 努力해왔고 또한 漸進的으로 努力하고 있다는 事實은 아무도 否認할 수 없다. 最大多數의 調和된 幸福은 人類의 理想이며 또한 人間의 自然的 所望이다. 이러한 事實을 否認하는 것은 自己欺滿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는 人類의 理想을 包含하는 原理라할 수 있다. 만약 或者가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는 認識論的으로 立證된 것이 아니라 筆者의 信念에 根據한 獨斷的인 原理라고 反駁하는 者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왜 우리는 우리가 願하는 것을 願해야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愚問을 提起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마치 '왜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느냐?'와 같은 어리석은 質問이다. 바로 그러한 質問이야말로 論理實證主義者들이 主張하듯이 전혀 無意味한 發言

(Meaningless Utterance)에 불과한 것이다.

vii) 또한 或者는 傳統的인 倫理說에 의하면 그 自体로서 尊重되는 本來的善(intrinsic Good)의 存在를 否定하므로 傳統的인 道德觀念에 符合되지 않는다고 主張 할런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傳統的으로 尊重되어온 主要德目 (the main virtue)을 들 수 있다. Platon의 主四德인 正義, 智慧, 節制, 勇氣라든가 또는 敬虔, 勤勉, 矜持, 誠實 等等은 그 自体가 善으로서 永久不變의 이며 關心의 選擇의 對象이 되느냐, 되지않느냐 와는 相關없이 道德的으로 '善한 것'이라는 見解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原理는 그러한 主張과도 矛盾되지 않게 調和될 수 있다. 所謂 '本來的 善'(intrinsic good)이라는 것도 原來는 關心과는 相關없이 獨自的으로 道德的 價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傳統的으로 오랜 歲月을 두고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어왔기 때문에 關心과는 相關없이 本來 그 自体가 道德的 善은 担持하는 '本來的 善'인 것처럼 錯覺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위에 例舉한 德目들은 過去나 마찬가지로 最大多數의 調和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기 때문에 道德的인 善한 것으로서 繼續 認定되고 있으므로 筆者의 原理는 傳統的인 道德觀念과도 矛盾되지 않고 一致한다 할 수 있겠다.

—Summary—

Can Ethics be Established as a 'Science' ?

*Rhee Hee—ju*

Emotivists assert that moral judgments cannot be justified in any objective way similar to those in which fact-judgments can be justified. They also hold that moral judgments are not assertions or statements ascribing properties to action or things, and insist that moral judgments have a very different logic, meaning, or use. It embraces a wide variety of views, some more and others much less extreme. The most extreme of those are a number of views that deny moral judgments to be capable of any kind of rational or objectively valid justification. On one such view—that A. J. Ayer—they are simply expressions of emotion much like ejaculations. Saying that killing is like saying, "Killing, Boo." It says nothing true or false and cannot be justified in any a similar view, except that he interpreted "Killing is wrong" as a command, "Do not kill." rather than as an ejaculation.

Many analytical philosophers likewise regard moral judgments as arbitrary commitments or decisions for which no justification can be given. By reason that moral judgments are more expressions of emotion, will or a command, they generally assume that such moral judgments can not be proved empirically on the basis of fact-judgments.

According to such theories, they assert that normative ethics cannot be established as science.

The gist of the treatise, therefore, is to inquire the questions to how can verify whether ethics can be composed of science.

The conclusion brought out in the consideration of the above question is as follows:

- 1) The moral good is the object of harmonized interest of the greatest number.
- 2) By virtue of such definition of moral good, all moral judgments can be translated into fact-judgments. For example, to say that is morally good means that it is the object of harmonized interest of the greatest number.
- 3) By reason of truth and falsehood as to fact-judgments can be proved empirically, all moral judgments can be verified, too.

By virtue of the above propositions, arguments as follows can be concluded:

- i) All moral judgments can be verified whether they are true or false.
- ii) Therefore, all moral judgments can be acknowledged as the object of science.